

#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학동 1주기 추모 물결

유가족·시민·정치인 발길 이어져  
‘운림 54번’ 보고 그리움에 눈물  
“붕괴사고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학동에 이어 화정동 붕괴사고가 다시는 일어 나지 않을기를 바랍니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참사 1주기 추모 식이 열린 오후 4시께, 지난해 철거건물 붕괴로 시내버스를 덮쳤던 사고 현장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정치인·시민사회단체 등 추모객들의 발길

이 이어졌다. 이날 참사 현장은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바로 앞 전봇대에는 추모식을 알리는 펼침막에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시민들은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났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지난 1월 또다시 반복된 화정아파트 붕괴사고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시민 김현성 씨(62)는 “학동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화정동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됐고, 사고 이후 후속 조치로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 사항이 없어 헛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시간인 오후 4시 22분이 되자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의 영령을 기리며 묵념을 시작했다.  
묵념이 끝나고 추모식장 옆으로 지나가던 ‘운림 54번’ 시내버스를 지켜본 유족들을 그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추모식 입구에는 안전 문화 시민공모전에 수상한 작품들도 전시돼 건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고 있었다.  
광주·전남건설노동조합에서도 이날 추모식에 참여해 형식적인 후속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상 건설노동조합 조직부장(40)은 “두 번

의 참사 이후 현장에서 형식적인 안전조치는 개선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최저 입찰구조, 불법 재하도급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의 조치들은 일시적인 수박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추모공간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광주시는 학동 참사 이후 종합대책위원회 구성하고 피해자들과 추모 공간, 보상 협의, 재발 방지 안전 제도 등을 논의했다.  
추모 공간에 대해서는 유가족·시민대책위·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학동 참사 민관공동 TF가 지난 3일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마땅한 결론은 나오지 않아 제자

리걸음 상태다.  
황옥철 유족 공동대표는 “큰 부지, 기념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3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위치 공간에 대한 설명 이외에 크게 진전된 게 아직은 없어 적극적인 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원하는 장소, 규모에 대해 논의는 어느정도 진행됐다”며 “하지만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거나 동구와 합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오월 단체 피해보상 촉구 오월 단체(유가족,부상자회,공로자회)가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유공자 및 가족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 “참혹했던 그날의 참사, 교훈 잊어선 안돼”

대책위 ‘안전한 사회 건설’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안전에 도외시한 불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가족들

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과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계실 부상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혹한 날을 잊지 않고, 이날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 나가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광주공동체는 여전히 학동

참사의 충격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참사 책임자들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책임자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조사조차 부정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 조치에는 항소로 응답했고, 추모공간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찬기 기자

## 아물지 못한 ‘마음의 병’...치료비는 피해자 몫

광주시 조례 제정 ‘하세월’

“허망하게 딸을 보낸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날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아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참사 부상자이자 유족인 A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고는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로 막내 딸을 잃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마음의 병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9일 A씨는 막내 딸과 함께 아내의 암 수술이 끝나 요양병원에 간병하러 가는 길이었다.  
수술이 혹여 잘못돼진 않았는지 가슴 졸인 마음으로 딸과 손을 잡고 아내가 입원한 요양병원까지 단 한 정거장을 앞두고 있었다.  
사고는 예기치 않고 다가왔다.  
버스가 잠시 정차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굉소리와 함께 뒤편 먼지가 주변을 뒤덮었다.  
당시 A씨는 온 몸에 큰 충상을 입어 오랜 치료를 받아야 했고 후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상태를 묻지 못했다.  
가족들은 딸의 49재를 치르고 나서야 A씨에게 사실을 알렸다.  
그날 이후 A씨와 유족들은 차마 막내와 살던 집에 돌아가지 못해 경기도로 이사를 간 후 광주를 왕복하며 심리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제를 복용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반복돼 현재 치료를 중단했다.  
A씨의 사위 B씨는 “현재 아버지는 경기도에서 치료를 이어 받고 있으나 다른 가족들은 치

료를 먹는 것과 치료를 받는 과정 자체가 힘들어서 중단했다”며 “광주에서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열핏 들었지만, 언제 답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동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붕괴사고 후 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은 그때의 약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붕괴사고 이후 끔찍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나, 심리 대응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위탁 운영으로 현장 상담부스 운영과 전화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까지 130건의 학동 사고 관련 상담을 지원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피해자 5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거리가 멀거나 근처 전문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 센터와 위탁된 곳을 제외하면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그 부담은 오로지 피해자들의 몫이 됐다.  
당시 치료를 받았던 김모씨는 “광주와 연계한 치료 센터가 아니면 치료비 지원이 되지 않아 두 차례 받은 후 중단했다”며 “거리가 멀거나 몸이 불편해 근처 병원을 가려면 본인 돈이 부담돼 그냥 참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광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심리회복도 중요하지만,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 기능성 속옷의 名家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말” 있습니다.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래킹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프, 루디아

블랙온사 바디 슈트의  
온사 레이스 품평회 1등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적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적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